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 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지도자의 부패

(미가 2장 1 - 13절)

라틴어로 ‘데오블렌테’라고 하는 말은 영어 약자로 DV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취하신다면 그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럽게 삶을 마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은 목적을 혼돈한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1. 지도자의 죄

(1) 악한 계획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1절).

죄를 피한다는 것은 죄를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꾸미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승리자 같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3절).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며 ‘그러나’ 요나는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러나’로 요나에게 대응하시어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요나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 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흡사합니다. 아모스가 사마리아의 악인들의 멸망을 예고한 것처럼 미가 선지자 역시 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2) 탐심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2절).

탐심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열 번째 계명이 탐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죄가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라면 탐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제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외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델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5절).

분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탐심을 갖는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3절).

탐심을 가진 사람은 그의 목에 멍에를 맨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4절).

하나님은 배교자들이 탐심을 품은 자들 보다 오히려 낫다고 여기시어 땅을 나누어 그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탐심의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취급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탐심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거짓 예언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6절).

거짓 예언자들은 부자들을 즐겁게 하고 방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복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세상적 약속만을 외칩니다.

한국교회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예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복 신앙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도다”(11절).

거짓 예언자들은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는 자들을 짓누르는 거짓 예언자들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2. 미가의 예언

“아꿈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12절).

미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예언을 합니다. 12절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다 모으며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참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처소’는 그리스도의 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남은 자며,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13절).

남은 자들의 앞에는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연 것과 같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봉장이 되시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좇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25일(수)을 승전의 날로!

25일(수)로 20일 간의 기도작전 마쳐

지난 6월6일, 시급한 기도의 때가 닥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로 응답받으려 2003 흥해작전을 시작한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제 승전의 날을 3일 앞두고 있다. 그 동안 계속된 기도의 행군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만이 어린이로부터 학생들과 청장년을 비롯한 노년층의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일심단결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진군하여 왔다.

오늘로 17일째 기도의 발걸음이 새벽시간 교회를 배우고 기도의 목소리는 하늘로 울려 퍼져나갔다. 이제 남은 시

간은 3일, 25일(수)이면 우리 모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우리 모두 승전하는 그날까지 더욱 힘찬 기도로 우리의 흥해를 가르는 은혜 누리도록 기도한다.

또한 이 날을 성도가 함께 기념하기 위해 25일(수) 흥해작전 승전일에 승전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 위하여 새벽기도 후 만나홀에서 조촐한 승전 잔치가 준비된다. 또한 20일간 개근한 성도들에게도 작은 기념품을 드리게 된다.

2003 농촌 전도대 파송

8월 5일(화)부터 9일(금)까지 4일간 2개 교회로

매년 뜨거운 여름철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하여 온 교회는 올 2003 농촌 전도대를 8월5일(화)부터 8일(금)까지 4일간 충남공주 승원교회와 충남 보령 신덕교회 등 2개 교회로 파송할 예정이다.

특별히 그 동안의 전도대는 1개 팀이 한 지역으로 파송

받아 활동을 하여 왔으나 올해는 전도위원회에서 전도대 조직을 소수 정예팀으로 구성하여 각 교회에 약 25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도위원회에서는 2003 농촌전도대로 파송 받아 전도, 의료, 이·미용, 성경학교, 찬양분야에서 봉사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도대로 파송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도의 침병이 되자

전도학교 6기생 모집 - 7월6일(주) 시작

전도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시작할 12주과정의 6기 전도학교를 이수할 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전도에 관심을 가진 성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일 2시 802호에서 1시간의 교육과 더불어 목요일 기준 70이 축호전도대 활동에 합류하여 실제 전도활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전도학교를 연중 계속 운영함으로써 교회는

꾸준하고 조직적인 전도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는 좋은 인력자원을 양성해 내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전도학교 4기 24명을 배출하였고 이어 현재 5기 12명이 교육 중으로 오는 6월29일 수료식 예정이다. 이들은 수료 후 거의 모두가 축호전도대에 합류하여 교회 인근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도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흥해작전 현장을 가다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백발의 믿음의 어른들까지, 일가족이 함께 혹은 부부가 함께, 친구와 함께 이른 새벽 아직 동도 뜨기 전 예배당에 들어서 유월의 흥해작전이 승전보를 앞두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마쳐 막 흥해 앞에 선 옛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은 심정으로 새벽 잠을 쫓으며 원근 각처의 가정에서 모여들고 있다. 이 악하고 게으른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센 흥해를 건너, 저 너머의 약속된 땅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의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천길 바다 속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간구하고 있다.

1563년에 발간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의 전신갑주와 다름없다. 흥해를 가르기 위해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이중용 목사님은 매일 새벽, 알기 쉬운 예화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적 지침들로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다. 평생의 나침반이 되어 줄 핵심적인 말씀과 교리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가까이 느끼는 요즈음 성도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천국의 백성과 같이 밝게 빛난다.

이중용 목사님은 매일 흥해작전에 참여할 때마다 한 장씩 배부되는 스티커를 모아 믿음의 유산과 가보로 남겨줄 것과 믿음의 대장정을 보고 후손들이 본받도록 할 것을 권하하셨는데, 너도나도 펼쳐보는 기도의 스티커 모음이 저마다 붉은 열매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승전을 확신하기도 했다. 교회에서는 승전일 날이 류음들을 수거하여 통계를 내고 시상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8층 식당에서는 곧바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편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른 새벽, 성도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손길도 아름답고 감사하지만, 모두가 한 식구들처럼 빵을 떼고 나누는 모습은 마치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다.

벌써부터 흥해작전의 승전보는 속속 도착하고 있다. 기도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흥해를 건너는 이도 있고, 회복과 거듭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어둠 속에서 끈히 잠들어 있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주께 드리질길 기도한다.

나소정(편집부)

수화교실 수강안내 -7월 첫 주 개강-

에바다부 수화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초반은 606호실에서 남원석 선생, 조미영 선생을 강사로 7월 1일(화)~12월 2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30~9:00까지, 중급반은 606호실에서 유충우 선생, 박현주 선생을 강사로 7월 4일(주)~12월 26일(주) 매주일 오후 1:00~2:00까지 열리고 고급반은 603호실 김성희 선생을 강사로 7월 4일(주)~12월 26일(주) 매주일 오후 1:00~2:00까지 열린다. 장애인 특수 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유년부 달란트 시장 오늘 701호실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있는 유년부에서는 공과공부 시간에 배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이웃을 돕기 위하여 달란트 시장을 오늘 공과공부 시간에 701호실에서 연다.

오늘 갖는 달란트 시장은 개인적으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의 현실을 시청각 교재와 강연을 통해 듣고 난 후 그동안 모은 달란트를 이웃을 위한 기부함에 넣고 모은 달란트를 해당 기관(유니세프, 국제기아대책기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작은 자 복지회 등)으로 보내게 된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작은 사랑의 자리와 그들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환우를 위해 기도합시다

흥해작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공동기도와 개인기도, 더불어 교회의 환우들을 기도하므로 온 성도들이 함께 흥해를 건너도록 하자.

교구	이름	교구	이름	교구	이름
1	홍의만선교사 이정의 성도 이두연 성도	5	김영연 권사 박청강 권사		이옥연 권사 이순영 집사
2	배아은 아기 최금례 권사	6	이영숙 권사 주연순 집사	10	김희순 집사 전병희 권사
3	이옥녀 권사 윤용의 집사	7	김영윤 집사 전철근 권사	11	박철훈 장로 이임희 집사
4	오재완 성도 백춘자 집사 김화 권사	8	남미희 권사 황승옥 집사	11	안순이 권사 서경숙 집사
	니종영 집사 박순옥 권사 신동재 성도		조민주 성도 강애자 권사 박두선 성도	12	손성윤 집사 정춘자 권사 이재윤 집사
	최원 권사	9	이기곤 집사 신기숙 집사		원영애 집사

생각에 봄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시작될 터인데 성도들은 예배당의 위생과 청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음식물은 반드시 8층 식당에서 섭취하고, 예배나 모임이 있을 후 해당 부서의 방과 각 층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벌레나 해충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홍해작전

장윤기, 노애리, 장애라 가정

1996년 처음 아내를 만나면서 서울교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서울교회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더불어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성경 통독, 2000년 결혼과 동시에 참여한 홍해 작전, 태극 단기 선교 교육, 전교인 체육대회, 장인 장모님이 속하신 교구모임 등에 참여하면서 비록 서울교인은 아니지만 서울교회를 통해 많은 교육과 은혜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산과 육아, 그리고 주일에는 섬기는 교회에서의 주일성수로 서울교회에 자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보다 서울교회가 거리적으로 훨씬 가깝고, 아내가 꿈에서조차 그리는 고향 같은 서울교회지만, 늦은 퇴근시간과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딸 해리를 데리고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



다. 문득 결혼 전 이종운 목사님께서 공부와 지식은 10년이 뒤쳐져도 다시 노력하면 뒤 따를 수 있지만 신앙은, 예배는 단 하루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떠올라 6월 6일 홍해작전의 시작과 함께 저희 가정도 '새로운 작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한지 벌써 15여일이 지나 이제는 홍해 작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다시 아내와 해라와 함께 전혀 망설임 없이 교회를 향하는 저 자신의 모습과, 4시 30분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서는 딸 해리의 모습, 그리고 지난 가을, 돌이 지난 해리를 업고 서너 달 새벽예배를 시도(?)하다 겨우추위와 몸살로 중단해버린 아내가 힘든 기색 없이 기쁘게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또 다른 감사와 감동을 느낍니다.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과 또한 해라가 어릴 적부터 즐겁고 당연함으로 새벽예배를 드리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그릇이 작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저이지만 이 부족한 잔을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일정상으로는 6월 25일에 2003년 홍해작전은 끝나지만 저희 가정은 계속 새벽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새벽예배를 가기에 너무 멀어 아내의 친정교회에서 다시 시작할 저희 가정의 이 새로운 새벽기도작전이 매일 새벽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피어나는 성령의 꽃

신경의 집사(12교구)

시퍼런 홍해가 무섭게 요동치며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우리를 추격하는 위기 속에 새벽은 은빛날개를 펴고 어둠 속을 비상한다.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릎으로 홍해를 건너간다.

어김없이 4시 10분이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김정호 집사님!

다락방 여덟 명의 가족을 책임지시려 깊은 잠도 못 주무시고 안절부절 죽으면 살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헌신하시는 집사님의 사랑은 각별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새벽을 깨우며 달리고 달리는 카풀가족 수지다락방 식구들은 차 안에서부터 찬양으로 후끈 달구어져 서로 서로 용기종기 모여 앉아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와 기도 제목 등을 서로 나누며 이미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

오늘도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허리를 동이며 다짐하는 다락방 가족들.

비록 화장이 없는 모습이지만 새벽에 오롯이 피어나는 성령의 아름다운 꽃들이다. 죽으면 산다는 그 향기가 수지에서 대치동까지 온통 거리를 진동하며 어둠을 밝힌다. 시퍼런 홍해에 기도 제목을 띄어놓고 새벽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호령하여 마른 땅의 기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이다.

목이 터져라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 가슴 가슴마다 외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위에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이 새벽에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눈으로 듣는 파이프 오르간



김형택 집사(12교구)

5.4.3.2.1 목사님의 카운트다운에 맞추어 전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썸을 다하는 순간 홀연히 막이 걷히며 감격에 목이 겨워 탄성을 삼켰다.

길고도 짧은 수직의 파이프들이 미끈하게 서 금빛과 은빛으로 광채를 발하고 장식 칸막이의 횡선의 배열이 점점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수축과 팽창의 찬란한 리듬의 향연이었다.

파이프의 가로수 길을 파고들면 저 편에 날아오르는 단정한 천사의 날개 짓. 그 중앙에 횡렬로 선 금빛의 파이프가 만나 눈부신 금빛 십자가로 형상화되어 데스칸트로 떠

오른다.

부드러운 원통이 층층이 솟아오른 당당하고도 우아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깊은 소리가 되어 천정을 감돌아 예배당을 울릴 것만 같다.

특별히 설계 제작의 3년과 설치 공정까지 함께 작업하며 지켜보아온 홍성훈 선생의 설명에 의하면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파이프 오르간이 설 자리를 배치하여 건축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한다.

9월이면 쾰른 대성당과 교토 콘서트홀 등에 설치된 수많은 오르간을 제작한 클라이스 사의 120년 축적된 장인들의 솜씨가 서울 교회에서 또 한번 빛나 5mm에서 10M까지의 크고 작은 목관 금관과 나팔관과 트럼펫 등 3900여개의 파이프들이 합하여 신비의 음향을 연출할 것이다.

작업에만 전념하는 독일인 기술자들의 정교한 손길과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한 우리 성도들의 큰 믿음이 아름다운 음색이 되고 박자가 되어 함께 어우러질 천상의 찬미에 참여하는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마냥 눈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배수의 진... 한미 동맹 50주년을 맞으며



이갑진 장로

전투의 진형 중에서 물을 등에 지고 싸우는 배수(背水)의 진은 필사적인 각오로 싸워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진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지하책(下之下策)의 상황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6.25동안 당시 북한공산군에게 낙동강까지 밀린 우리는 이 배수의 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출 6:17)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도 임하셨음을 보았다. 특히 하나님은 국가존망이 달린 위난의 시기에 미군을 보내 주셨고 이때 맺어진 한미동맹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 50년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매우 절실한 때다.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

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의 방위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고 정보력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전 세계에 배치하고 있는데 미국 본토방어와 자국의 국익에 보탬이 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종래의 전쟁에 대한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느 특정국가에 군대를 밀집배치하기 보다는 테러 등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동군 개념의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나온 것은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뜻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한미동맹의 본질은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하며 그 전제는 바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다. 한미동맹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일부 부정적 시각과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해도 이 땅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왔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동맹의 본질인 ‘위협’에 대한 인식에 한미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차이를 말한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

다. 우선 북한은 우리가 수용 불가능한 국가사상을 가진 집단이며, 대남 적화전략이 아직 불변하고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 생물학무기,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북의 위협에 대해 과거에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필요로 했으나, 지금은 미국이 북핵 위협을 제거함에 있어서 한국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반미 정서와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의 대북, 대미관에서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인식의 공유와 한미관계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우리는 지금도 북핵을 향한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건너야 할 흉흉한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 북핵의 땅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땅이다.

북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그 땅과 동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의 이 분단된 현실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또 이 나라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성과 회개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랑에 빛진 자 되어

홍순석 성도(13교구)

아내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약생활을 시작 한지가 여덟 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갑작스런 불행이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져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방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초에 큰딸의 중학교 진학으로 성북구에서 강남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으며 이곳저곳 교회를 알아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서울교회에 등록을 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과 새가족부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난 2월, 십여 년 전에 고관절로 수술을 받았던 다리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진단결과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인공관절만 바꾸면 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예상외로 수술 부위 주변의 골수가 인공관절에서 나온 가루로 인해 파괴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수술 날 아침 신 새벽에 이성득 교구목사님과 담당 목

사님 오정식 목사님, 이규정 목사님, 지혜영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병실은 이인 실이었는데 옆 침대의 분은 전라도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전도를 하자며 이런저런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멀리에서 오셔서 목사님 기도도 못 받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어 마음이 불안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더불어 기도를 해주셔서 그 분들이 무척 감사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도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독한 통증과 지혈이 안 되면서 혈압이 떨어져 회복실에서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마침 목사님께서 수술 잘 끝났느냐고 전화를 주셔서 사정을 말씀드리자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약 오분 후에 제가 회복실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에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먼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오셔서 기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찾아와 주시거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서울교회 식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거의 회복되어 통증도 없으며 이 개월만 목발을 짚으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나 이번 질병을 통해 한번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성경을 완전히 통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하여 나 자신이 거둬나게 하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관별 식당동사자

6.22 (주일) - 빌립 선교회 6.29 (주일) - 안드레 선교회

-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4일 (화) 연세대 신과대 학장 취임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25일 (수) 한국 울진 협회회원 100명의 방문을 받고 인사한다. 27일 (금) 홍희산하 기독교 대학위원회 논문 심사를 한다.
 - 개업: 하영숙 성도(1교구) (주)퓨어 살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1층H-24 566-6466
 - 이전: 홍창배, 권희순 집사(2교구) T&S케미프론 공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64-7 Tel) 031-768-4325
 - 이사: 김재근 집사 안본선 권사(10교구로) 031-797-5049
· 신동천 집사, 박용혜 집사(7교구) 동부 이촌동 LG 자이apt 110-1803 794-5747
· 성준경 장로(5교구) 수원시 고등동 삼호빌라 031-257-4889
· 이민자 권사 031-382-4850
 - 수상: 이태원 집사(7교구) 프랑스 정부 근속공로훈장수상
 - 승진: 이장로 성도 기획처 서기관으로 승진
 - 취임: 김강주 성도(4교구) 대일학원 원장
 - 이관규 장로, 이순영 집사 가정 70인 전도대 전도음료수 무한 제공
 - 금주의 식사: 이영기 장로 이영숙 권사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3 홍해작전 승전 감사를 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4. 오르간 설치 중 사고 없게 하시고 봉헌 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